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2월 4일(금)

(윤력 1월 4일)

Пятница

4 февраля 2022г.

№ 4 (1197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사할린 등대 2021>주지사 상 시상식이 지난 1일(화) 개최되었다. <외식산업 선두주자>부문에서 우승한 '그린 솔루션'회사 안화자 대표 이사가 주지사에게서 상을 수여받았음. (주정부 홍보실 제공)

주지사, "사할린 등대" 수상자 시상

주지사가 제정한 "사할린 등대" 상을 사할린 및 쿠릴 주민 19명과 22개 기관, 기업, 공공단체 등이 수상했다. 사할린주민속예술클럽에서 주지사가 직접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여러분 모두가 활동적이고 재능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전문 분야나 공공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러분들의 노력은 주민들의 신뢰와 인정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누가 사할린 등대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지역 주민들이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업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르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흥미롭고 유용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단결하여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며, 사업, 창의성, 스포츠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우리 지역은 더 확실하게 발전할 것입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강조했다.

31개 부문에 500개 이상의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4만 명 이상이 쿵쿨에 참여했는데, 이는 첫 번째 경쟁때보다 5천 명 더 하는 셈이다.

수상자 중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4번 시립 진료소도 있다. 이 의료기관은 "건강한 지역" 부문에서 우승했다.

"이번 우승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우리의 직업적 성장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이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더 친절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4번 시립 진료소 주치의 알렉세이 예피모브가 말했다.

"문화유산"(도서관) 부문 수상은 스미르니흐 중앙 모형 도서관 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투표해 줘서 매우 기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마도 2021년 우리 도서관이 지역 최고의 도서관으로 인정받은 성공적 행사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정기적으로 도서관 기금을 보충하고, 공공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및 휴일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마을 전체를 위해 우리는 광장에 휴게 장소와 매점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서관을 찾아주시는 독자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라고 강 스웨틀라나 도서관장이 말했다.

참가자 중에는 의사와 교사, 선수와 코치, 문화인사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활동가, 다자녀 가족 및 재능이 넘치는 어린이 등이

있었다. 또한 식품산업, 수산업, 서비스산업, 석유가스업, 중소기업, 공공자치지역, 매니지먼트 기업, 사회기관, 스포츠클럽, 공공기관, 운동 등의 기업들이 사할린 등대 수상을 위해 경쟁했다.

쿵쿨 입상자들에게는 주지사 및 정부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 방문시에 상을 전달할것이다.

이번 경연대회 수상자 및 입상자 중 한인 이름도 적지 않았다. <외식산업 선두주자>부문에서 '그린 솔루션'(대표이사 안화자, 메가팔라스호텔의 '그릴 나 네베' 레스토랑) 우승했고 <식품 산업 선두주자>부문에서 '하나안'회사(대표이사 이 세르게이)가 입상하였다.

<서비스분야 우수대표>부문에서는 '드림'여행사(대표 이사 박 율리아)와 '그린 솔루션'(대표 이사 안화자, 메가팔라스호텔)이 입상하였다.

<중년 자원봉사자>부문에서는 박영자(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 단장), <사범>부문에서 이 세르게이(코르사코브 태권도 학교 트레이너), <기술의 장인>부문에서 신 율리아(<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교사), <올해의 인물>부문에서는 김 안톤(초등학교 교사)이 입상했다.

(본사 기자)

단신

사할린,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러시아 선수단을 응원

모스크바 시간으로 2월 4일 15시에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시작된다. 러시아 대표팀은 계속 국기없이 참여할것이며, 우승 시에는 국가 대신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중 일부가 울려 퍼질 것이다.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은 올가와 알렉세이 젤토브의 제자 사할린 스노보드 선수 소피아 나디르쉬나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다.

2월 2일에는 사할린의 스포츠 팬 및 청소년들이 스포츠 및 관광 복합단지 '고르니 워즈두흐' 중간 현장에 모여 러시아 선수단, 특히 사할린의 소피아 나디르쉬나 선수를 응원했다.

사할린 급식 시설, 다시 야간 운영 금지

사할린주와 러시아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급속발생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 특별방역대책이 다시 시행되고 있다.

주지사의 포고령에는 밤 11시 이후 지역에서의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야간 유흥업소 이벤트 금지가 포함되었다. 공항, 버스정류소, 철도역, 그리고 포장판매하는 카페 및 레스토랑 등의 급식시설은 여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일요일 저녁에 발표된 문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월 30일, 러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작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기록되었다. 하루 12만 건 이상이 감염됐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는 하루 236건 감염 됐다.

사할린출신 이고리 김,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여 데플림픽에 출전

사할린출신 태권도 선수 이고리 김이 러시아 청각장애인 체육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58kg까지의 체중 카테고리에서 사할린 출신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선수가 없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그는 메달뿐만 아니라 5월 1일- 15일간 브라질 카시아스두술에서 열리는 제24회 하계 데플림픽 출전권을 얻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대회 준비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고리는 모든걸 잘 해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대회를 준비할 것입니다."라고 코치 겸 교사 데니스 김이 말했다. 이 계획에는 여러 훈련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키슬로워드 스크에서의 첫 번째 훈련이 다음 주에 시작될 것이다. 일정이 빠듯하여 브라질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훈련을 할것이다.

러시아 청각장애인 스포츠 선수권 대회(태권도)는 28일부터 31일까지 모스크바 포크롭스코예 레크리에이션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55개의 메달을 두고 이 대회에서 선수들이 경쟁했다고 지역 체육부에서 보도했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역사와 삶을 성찰하다

대중과학 에세이 <사할린 한인의 숙고와 고백>을 집필한 사할린 영주귀국자 문재도 씨

작년에 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국에서 영주귀국자가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새고려신문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알고 보니 저자는 김포에 거주 중인 **문재도** 씨였다. 그는 러시아어로 <사할린 한인의 숙고와 고백> (Размышления и откров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이에 본사 **배순신** 기자는 저자와 서면 인터뷰를 하였다.

- 우선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사할린주 샤흐초르스크 시에서 태어났고 샤흐초르스크 중학교를 졸업한 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국적자였기 때문에 모스크바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이르쿠츠크국립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거기에서 반년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이르쿠츠크에서 모스크바에 갈 허가를 받고 1966년에 모모노소브명칭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국제경제학과에서 공부했는데 세부전공은 일본 경제였어요. 일본어를 배웠고 일본어 국가시험(대학 졸업 시험)도 봤습니다. 졸업할 때 준박사 대학원에 추천서를 받았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파견된 곳에서 일해야 했었는데 저는 파견도 되지 못했어요. 무국적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2년간 노숙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 집도 없었고 일자리도 여러 번 바뀌었고 막노동에 시

달렸습니다. 공장에서도 일했고 건설현장 등에서도 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소련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때 지인 추천으로 소련 과학아카데미 소속 소련과학기술정보연구소에 하급 연구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고 그 곳에서 1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대학원도 졸업했고 준박사를 따냈습니다. 논문 주제는 <한국의 대외경제적 팽창>이었습니다. 1984년에 소련 과학아카데미 소속 동양학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주로 한국학 연구를 했습니다. 1987년에 연구소 소장의 지시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위해 소련과 한국이 외교를 수립해야 한다는 증거(근거문)를 준비 작성했고 나중에 이 문서내용을 간략하게 소련 내각 니콜라이 흐즈코브 수상 앞으로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련과 한국은 1990년에 수교를 맺었습니다.

연구원의 월급이 너무 적어서 1989년에 사표를 내고 모스크바 통번역합동조합에 들어가서 일본어 통역사로 활약했습니다. 삶이 많이 변하더군요. 일본 회사들의 요청으로 통역사로 전국을 돌아다녔고, 가끔 한국어 통역도 맡았습니다.

2008년에 일본 코마츠맨유팩팅 (Komatsu Manufacturing Rus)에 입사해서 2015년에 김포에 귀국하기 전까지 일했습니다.

- 책은 처음 쓰셨나요?

- 연구소 시절, 남한과 북한 경제에 대한 논문 15편을 써서 <극동



의 문제>잡지를 비롯해 공개되지 않은 여러 간행물에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적 팽창>이라는 주제로 쓴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책을 집필했는데 연구소에서 발행허가가 떨어졌지만 제가 동양학연구소를 그만두게 되면서 인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 <사할린 한인의 숙고와 고백> 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쓰게 된 동기는요? 책을 파일로 받아보았는데 300페이지 이상이군요.

- 네, 책은 소설도 아니고 연구 논문도 아닙니다. 숙고를 담은 대중과학 에세이라고 할까요? 사실 1965년에 사할린에서 멀리 떨어진 생활을 시작할 때 사할린 동포의 삶, 자의식의 변화, 세계관과 가치 지향, 사고방식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강대국의 오만함, 과거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 현재에 대한 오해, 소련과 러시아 연방 인구 대다수의 빈곤에 대해 성찰하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종이에 적어 나갔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든 일이라는 걸 이해했지만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모험'에 뛰어들었다고 할까요. 수년간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포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학 및 저널리즘 문학 장르에서 글쓰기를 시도해 보았는데 책이 지루하다고 생각되면 엄밀히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글이 세계와 자기 민족에 대한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히고 약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기쁠 것입니다. 결국 자기 민족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끝없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되었고 삶에 대한 생각은 제가 2008년부터 적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일본 회사에서 일하면서 모스크바와 야로슬라블리를 기차로 오가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한 후에 조금씩 책에 집중했습니다.

- 선생님의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선생님께서 러시아 역사문제도 살펴보고 러시아인들의 사고방식,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할린한인사, 비판과 마음속 이야기, 선생님의 여러 생각 등 여러가지를 다쳐놓으셨더군요. 많은 생각을 담은 책인 것 같아요. 2015년에 김포에 영주

귀국하셨는데 지금의 삶에는 만족하시나요?

- 네, 한국 생활이 마음에 들어요. 원래 독서와 그림을 즐기는 사람이고 산책도 좋아합니다. 귀국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등산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얘기도 많이 나누고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일본어를 잘 했지만 한국어는 유창하지 않았는데 귀국해서 한국어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도 배우고 있습니다.

동양민족(한인, 중국인, 일본인)은 유럽인, 러시아인과 달리 성찰을 좋아합니다. 잘못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성찰이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성찰 자체가 마음에 듭니다.

-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성품 중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겸손, 자비, 정직함과 신중한 성품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귀국자들을 많이 알고 있죠.

- 좋아하시는 명언, 즐기시는 책이 있다면요?

-명언은 많은데 특별히 마음에 새겨 두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독서도 즐기는데 딱히 뭘 좋아하는지 말하기가 어렵네요.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여러 번 다시 읽기는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즐거운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어린이미술학교 전시회 개최

어린이미술학교 전시관에 수강생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미술공예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에서는 평면구성, 직물(바틱, 태피스트리, 펠트 공예), 콜라주, 종이, 종이 팝업, 파피에마세(종이반죽 공예), 도자기(장난감, 부조) 등의 기법으로 만든 작품들을 선보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전통 러시아 민속 예술 문화를 배운다고 한다. 작품들은 민속 예술 이미지의 아름다움과 미학을 생생하고 간결하게 전달한다.

2월 28일까지 전시회를 방문할 수 있다. 주소는 워크잘나야 거리 5a번지라고 시행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Выставка учащихся де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откры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де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работ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авторами которой стали учащиеся учреждения.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ные в техниках плоскостной композиции, текстиля (батик, gobelen, валяние), коллажа, витража из бумаги, бумажной пластики, папье-маше, керамики (игрушка, рельеф)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Как отмеч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воспитанники школы с первого класса приобщаются к богатой традициям народ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Их работы ярко и лаконично передают красоту и эстетику образов наро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у можно до 28 февраля по адресу: ул. Вокзальная, 5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사할린에서 겨울 수영 대회가 열려

사할린 지역의 겨울수영 우승컵은 아니와 지역의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들이 차지했다. 겨울 수영 대회는 이번이 두 번째로 류토가 강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25미터 및 50미터 거리에서 경쟁을 펼쳤다. 선수들은 자유형, 평영, 접영에서 5개 연령대로 나누어 경쟁했다. 코스의 길이는 25m였다.

연령대별로 자유형 25m 거리에서 열린 대회 결과로는 옥사나 표도로와 및 스웨틀라나 코시찌나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고, 2위는 한순희 선수가 차지했다. 스웨틀라나 코시찌나 선수는 평영에서 25m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지만 자유형 50m에서는 라이벌 한순희에게 패해 2위를 차지했다.

일리아 말레예브, 드미트리 스쿠리딘, 알렉산드르 카르포브, 알렉세이 즈다노브는 25m 평영에서 각자 연령대 1위를 차지했다. 데니스 란진과 왈레리 쿠친스키는 접영 25m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자유형 25m에서 선두는 알렉산드르 메젤레브, 알렉산드르 카르포브, 알렉세이 즈다노브가 차지했다.

일리아 말레예브와 알렉세이 즈다노브는 평영 50m에 참여했다.

알렉산드르 메젤레브, 데니스 란진, 알렉산드르 카르포브, 알렉세이 즈다노브는 자유형 50m 계주를 각자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주 스포츠 보도부에서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ись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холодовому плаванию

Куб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холодовому плаванию собрал экстремалов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Гонки в ледяной воде провели в акватории реки Лютоги во второй раз.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посоревноваться на дистанциях 25 и 50 метров. Спортсмены оспорили победу в пяти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вольным стилем, брассом или баттерфляем. Длина проруби составила 25 м. По итогам состязаний на дистанции 25 м вольным стилем в свои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золото заработали Оксана Федорова и Светлана Косицина, второй

стала Хан Сун Хи. Эту же дистанцию брассом проплыла Светлана Косицина и вновь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но уступила сопернице Хан Сун Хи на дистанции 50 м (вольный стиль) и стала второй.

25 метров брассом лучше всех в свои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преодолели Илья Малеев, Дмитрий Скуридин, Александр Карпов и Алексей Жданов. Денис Ляндин и Валерий Кучинский стали лидерами на дистанции 25 метров (баттерфляй). На дистанции 25 м (вольный стиль) лидеры — Александр Метелёв, Александр Карпов и Алексей Жданов.

50 м брассом отважились проплыть Илья Малеев и Алексей Жданов.

50 м вольным стилем быстрее всех в своих категориях преодолели Александр Метелев, Денис Ляндин, Александр Карпов и Алексей Ждан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유즈노사할린스크, "흰 캐슬" 대회 결과 발표

지난 1월 28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체스클럽에서 열린 학교팀들의 경연대회 '흰 캐슬'의 시 대회가 막을 내렸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14개 중등교육기관에서 56명의 학생들이 전러시아 대회 지역 대회 진출권을 놓고 경합을 벌였다.

이 대회는 스위스 시스템으로 진행되었는데, 각 선수에게 매 순서마다 30초씩 추가되는 60분의 경기 시간이 주어졌다. 대회 결과로는 3위는 제3 김나지아 팀, 2위는 제2 김나지아 팀이 차지했으며 최고의 챔피언 자리는 제2 리제이에서 차지했다.

폐막식에서 대회 주최 측은 우승자와 입상자에게 컵, 메달, 상장을 수여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체스에서 성공하고 더 많은 승리를 거두기를 기원했다.

단체전 우승 외에도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준 최고의 젊은 체스 선수들도 상을 받았다.

(8면에 계속)

새 한인단체, 음력설맞이 행사 개최

지난 1월 2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음력설맞이행사가 진행되었다. 사실 이 행사를 사할린 주한인협회에서 여성회, <60+>클럽 회원, 남부 지방한인회(홈스, 코르사코브, 아니와) 활동가들을 위해 개최하려고 했는데 행사 일주일전에 주최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 행사 준비를 새로 생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단체(회장 천영곤)가 몽땅 맡았다. 예상한 70명보다 훨씬 많은 총 150여명이 참가했다. 주로 사할린동포 2세와 스포츠 관련 분들이 많았다. 행사에 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 출장소 곽기동 소장 내외도 참가했다.

이날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 곽기동 출장소장, 주한인협회 김홍지 고문, 새로 조직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단체 천영곤 회장을 비롯 많은 분들의 축사가 있었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 팀·<아리랑>무용팀, 동포 가수인 강팔용·우 미하일·서 마리나의 열띤 무대가 명절기분을 한층 돋구어주고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무용단이 다시한번 한민족 예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이날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이병일)의 세계민족춤 반은 <밀랑 아리랑>무대를 선사했고 김 타치아나의 무용그룹이 플라멩코를 멋지게 추었다. 새로 생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단체에서는 러시아 동화 <레프카(무우)> 단막극을 준비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대사를 나누는 출연자들의 모습과 연기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기분이 좋은 설명절행사 참가자들은 이날 러시아, 한국, 외국(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음악에 맞춰 계속 즐거운 춤판을 이어 나갔다.

(배순신 기자)



학생 백신접종은 부모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할 것

이에 대해 월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 주 정부 회의에서 밝혔다. 12세에서 17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백신이 일주일 전에 사할린에 도착했다. 126명 학생들이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접종을 받았다. 485명의 아이들이 부모 사전 동의를 받았다.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접종이 가능하다. 사할린 학생들의 건강에 관한 한 강요는 있을 수 없다. 백신접종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강제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월레리 리마렌코가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담당 소아과 의사 참관하에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예방접종 후에는 각 접종자를 예의주시한다. 지난 한 주 동안, 오직 한 명의 학생만 미열이 발생했다. 이는 신체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예방접종 캠페인 첫 날에 수명의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신청했다면, 요즘 어린이 진료소는 매일 수십 명의 접종 대상자들을 보게 된다. 백신접종을 하러 자식들을 먼저 데려오는 사람들이 의료진들이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2,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위험하다.

스푸트니크 M 백신은 스푸트니크 V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 시험이 진행됐다. 성인용 백신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용 백신은 2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접종은 21일 후에 진행해야 한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오늘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어린이 진료소에서 백신접종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다음에 접수되는 백신은 사할린 전 지역들에 배포될 것이다.

사할린, 러시아 민족들의 문화유산의 해 개막식 열려

러시아 민족들의 문화유산의 해 개막식이 사할린 지역주민회의 협력으로 1월 29일 지역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열렸다.

개막식에 주 문화기록부 장관 논나 라브리크, 사할린주민족연합회 마리아 키릴로와, 소피아 러시아문화영성교육센터장 알렉세이 슈스틴, 사할린주 사회원 부의장인 빅토르 고르바츠 사제, 사할린 지역 다민족 대표자들, 사할린 국립대학 전문가들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대통령이 민족예술의 대중화, 문화적 전통, 역사적 문화적 기

념물, 다민족문화, 모든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러시아 민족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할 것을 언급하여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해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올해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일년 내내 수많은 흥미로운 행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논나 라브리크가 행사를 열었다.

올해의 중요성을 사할린주 민족연합회 키릴로와 회장도 강조했다. 그녀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각 민족이 고

유의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나라 영토에는 190여 다민족이 있으며, 각 민족은 인류 보편적 정신적 가치와 고유하고 독특한 최고의 문화적 요소들에 기여하고 있다.

저녁 행사에 각 민족 대표들이 민요와 무용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통 문화를 선보였다. 관객들을 위해 전통 음악 '소피아'의 앙상블, 바쉬키르 춤 '굴다르'의 안무 앙상블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도서관 로비에 러시아의 다민족 문화를 위한 포토존이 준비되었다고 도서관 보도부에서 전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설날 아침에 / 김종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 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얏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險難)하고 각박(刻薄)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운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설날이면 으레 다짐을 합니다. 살을 아주 쪽 빼버리고야 말겠다.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벌겠다. 여자 친구를 꼭 만들어야겠다. 아! 아니지요, 이건 아닙니다. 전 결혼했지요, 참 나! 이 말은 취소할게요, 취소! 한해도 빠짐없이 이런저런 다짐을 해왔건만 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한결같네요. 어째 이런 건 잘도 지켜내는지요, 하여튼. 올해는 설날을 앞두고 속리산 '문장대(1054m)'에 올랐습니다. 글이 장대하게 풀린다는 봉우리의 뜻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콧물을 줄줄 흘리며 마침내 정상에 올랐어요. 1054미터에서 내려다 본 세상은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내려오는 길. 처절할 만큼 숨을 가빠쉬며 문장대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저 분들은 또 무슨 사연을 들고 소원을 빌러 오셨을까? 한참 이런저런 엉뚱한 상상을 하며 심심찮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설날이라는 명절은 그런 힘이 있는 걸까요? 올해에도 저는 장대하고 비장하고 웅장하면서도 겸허한 '각오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쏘! 이 글을 호랑이처럼 무서운 아내가 볼 수 있으니 제 각오는 물론 비밀로 남깁니다. 왜냐? 뭐, 저는 아무지니까요. 여러분들은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꿈꾸는 그 모든 일들을 꼭 이루시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에서 허진원

사할린주에 스마트 스포츠센터를 위한 1억2000만 루블리 지급될 것

러시아 정부가 3년간 90억 루블리를 스마트 스포츠센터 및 모듈식 체육관건설 비용으로 지급할 것이다. "비즈니스 스프린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연방 프로젝트가 러시아 84개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000만 루블리씩 1억2,000만 루블리가 사할린 지역에 할당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80개 이상의 모듈식 체육관과 약 200개의 스마트 스포츠 경기장이 지역들에 건설될 것이다. 이 시설들은 현대적이고 원활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포츠 시설들로 될 것이며, 방문객들은 개인 운동을 하고 운동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시민들을 스포츠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연방정부 웹사이트의 해당 프로젝트의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다.

체육부는 이 자금을 대중스포츠 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는 민관 협력사업의 공동 자금조달 및 지원에 사용할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ец Игорь Ким победил на чемпионате России и поедет на Сурдлимпиаду

Сахалинский тхэквондист Игорь Ким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чемпионате России по спорту глухих. Островному спортсмену не было равных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58 кг (керуги).

Победа на чемпионате принесла сахалинцу не только медаль, но и подарила путевку на XXIV Летние Сурд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городе Кашиас-ду-Сул (Бразилия) с 1 по 15 мая.

— Подготовка к чемпионату была сложной в план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Тем не менее, Игорь справился, и все прошло хорошо, — рассказал тренер-преподаватель Денис Ким. — Будем готовиться очень серьезно. План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ряд трениров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контрольных стартов. Уже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начнется первый сбор в Кисловодск. У нас плотный график,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до самого отлета в Бразилию.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спорту глухих (тхэквондо) проходил в Подмоскovie на 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базы отдыха "Покровское" с 28 по 31 января.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было разыграно 55 медалей,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минспорт.



Историческая Родина благодарит Казахстан за возвращение останк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ероя

Сеул, 30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поблагодарил президента Казахстана Касым-Жомарта Токаева за возвращени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станков почтаемого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когда они обменялись письмами по случаю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авгус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станки Хон Бом До,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почтаемых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были похоронены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Тэджон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из Казахстана.

Хон — историческая и весьма символическая фигура в борьбе Кореи против жесто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Японии в 1910-45 годах. Будучи высшим командующим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армией Кореи, он возглавлял победы в боях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войск. Особенно хорошо известна битва при Фэнвудуне в Маньчжурии, Китай, в 1920 году.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н переехал на совет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ща убежища от японцев.

Он был вынужден переехать в Казахстан в 1937 год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литикой тогдашнего лидер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осифа Сталина, наряду со многими другими этниче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Он умер в возрасте 75 лет в казахской области Кызылорда в 1943 году, за два года до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дельно Мун Чжэ Ин обменялся письмам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Узбекистана Шавкатом Мирзиёевым и президентом Кыргызстана Садыром Жапаровым, поскольку Южная Корея отметила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едставля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гороскоп на 2022 год, составленный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м астрологом Ириной Хан.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ровизор занимается китайской астрологией БАЦЗЫ пятый год. Этому увлечению она отдает немало времени. Ее приглашают на интервью в Инстаграм, многие жаждут лич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Так что же такое Бацзы? В переводе с китайского это слово означает «восемь иероглифов». Речь идет про иероглифы, описывающие дату рождения — считается, что в них закодирована судьба человека. В карте каждого иероглифы располагаются в четыре столбика — или столпа, — обозначающие год, месяц, день и час рождения человека.

В учении Бацзы есть пять видов энергий — Деревя, Огня, Земли, Металла и Воды. Каждая энергия имеет знак: Янь — мужской аспект, и Инь — женский аспект.

Помимо десяти иероглифов энергий в Бацзы есть и 12 сезон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12 месяцам. Они обозначаются названиями животных.

Очень важно знание Фен-шуй.

Гороскоп от астролога Ирины Хан

КРЫСА — по китайской астрологии — это очень умное, хитрое, выносливое и командное животное. В 2022 году, к сожалению, в секторе крысы (север-2) находится ТРИ ША.

В метафизике Востока полезная энергия называется Ци, а та, что вредит живому — Ша. Наиболее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й для людей, создающей сложности в жизни и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является энергия, называемая в фен-шуй Три Ша.

Они несут три вида неудачи, каждая из которых имеет определенную сферу влияния. Первое Ша называют Ша ограбления, и оно дает потери финансового рода. Второе Ша влияет на отношения и здоровье. Третье Ша называют Ша замедления и задержек. Поэтому нужно обязательно принять меры и защититься от вредоносных Ша.

Старайтесь не посещать места иньского края — кладбище и похороны. Это будет напрямую влиять на удачу крыс.

Не находиться в сейсмически опасных местах. Перед походом убедиться, что на воде будет штиль, а в горах тихо, без лавин.

У крыс 2 хорошие звезды, и я думаю, что они переключат в год Тигра весь негатив. Это звезда Путешествующей лошади и звезда Радости.

Путешествующая лошадь — звезда счастливых перемен, символизирует свободу, стремление к развитию. Она-то и помогает преодолеть все трудности.

Крысы будут много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возможен переезд в другой город или страну.

ЗВЕЗДА РАДОСТИ даст вам много радостных моментов, дает умение быть счастливым!

ДЕНЬГИ: только в упорном труде к вам придут деньги. Должен быть творческий подход, использовать инновации.

КАРЬЕРА — на работе остерегаться конфликтов, не менять рабочее место в этом году.

ЗДОРОВЬЕ —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экстрима, остерегаться травм, пройт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БЫК — в 2022 году быки встретят своих покровителей. К ним придет звезда БЛАГОРОДНЫЙ ЧЕЛОВЕК НЕБЕСНОЙ ВЛАСТИ. В сложных жизн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непременно будет оказана помощь.

Одна из хороших звезд — это Звезда красный лунь. Это звезда брака и красоты, отвечает за прекрасные роман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Звезда помогает привлекать партнеров не только для брака, но и в бизнесе. Людям трудно будет вам отказать.

Звезда золотая карет повысит ваш статус. Вы будете стремиться к красоте, звезда приносит богатство.

Звезда Благородный тайцзы. Звезда, дающая человеку огромные жизненные силы,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одолевать любые препятствия и проблемы, обладать крепким здоровьем и иметь высокий материальный и духовный уровень.

ЗДОРОВЬЕ — возможны травмы на дорогах.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болезни, соблюдайте правила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БОГАТСТВО — стабильно.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большую прибыль, но необходимо следить за здоровьем.

КАРЬЕРА — в 2022 году будут покровители и они помогут подняться по карьерной лестнице.

ТИГР — Для вас год будет очень больших изменений. Тай Суй — князь года стоит за спиной. Год пролетит динамично и молниеносно. Казалось бы, что Тигры — хозяева в свой год могут делать все, но это ошибочное мнение. В 2022 году тиграм лучше плыть по течению и не ставить высоких целей.

Из негативных звезд у тигров звезда ОДИНОКИЙ ФЕНИКС.

Эта Звезда символизирует одиночество и

трудности в заключении брака.

Тиграм нужно преодолеть множество проблем и меняться под влиянием перемен. Лежать тиграм нельзя в 2022 году.

БОГАТСТВО — не влезать в кредиты. В 2022 году увеличение доходов не предвидится.

КАРЬЕРА: сложно будет добиться прорыва в работе. Необходимо налад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начальством. Возможно предательство.

ОТНОШЕНИЯ — у тигров нет времени на отношения.

ЗДОРОВЬЕ: психическое, а значит, и физическое здоровье будут требовать внимания. Особенно тиграм 62, 74, и 2010 года рождения!

На физическом уровне избегать пожаров, электричество, катастрофы в небе, на мотоцикл не садиться. Нежелательно лететь в августе в путешествие. Обратит внимание на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ую систему, нервную систему, печень, желчный пузырь.

КРОЛИК — Для вас год хороший, хотя и не без нюансов.

В 2022 году с вами Благородная небесная звезда. В китайской астрологии кролик — это энергия дерева инь, цветочек вьюнок, который вьется по большому дереву к солнцу. Так вот, большое дерево в Бацзы — это ТИГР. В нем основная энергия — ДЕРЕВО ЯН.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кроликам будет оказана помощь от покровителей. Кролики могут открыть свое дело в год тигра. Карьера может взлететь вверх.

ДЕНЬГИ: финансовая удача очень качественная и очень хорошая. Кроликов могут продвинуть на более высокую должность. Деньги будут поступать в ваши кошельки и на карточки.

КАРЬЕРА — чем больше вы будете показывать свою активность, тем больше будете получать помощь.

ОТНОШЕНИЯ — в 2022 году удача в любви и романтике. Если вы не в отношениях, то они к вам придут. Но если вы в браке, то будьте осторожны, не увлекайтесь, не сближайтесь с другими, соблюдайте социальную дистанцию. Кролики — это кардинальный знак, один из цветков персика. В китайской астрологии самый сексуальный и плодородный.

ЗДОРОВЬЕ — будет в норме. У мужчин-кроликов могут быть небольшие проблемы ЖКТ. Занимайтесь спортом.

ДРАКОН — весь год дракончики проводят в борьбе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своих целей.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года будет намного сложнее. Будете вспыльчивыми и погружены в свои проблемы. Но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ваше внутреннее состояние и положение дел во всех сферах улучшится. Драконы, будьте решительными в год тигра! Вам помогут близкие для вас люди. Для удаче дракончики должны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свое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заботиться о них. Драконы в 2022 году обязаны следить за своими словами. Необходимо сначала думать, а потом говорить. Вы будете очень эмоциональны с начальством, с коллегами.

БОГАТСТВО — по общему прогнозу больших денег не будет, но все будет сбалансировано. Если весь год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рациональных трат, то к концу года возможна покупка недвижимости.

КАРЬЕРА — в карьере вас ждут успех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ОТНОШЕНИЯ — у драконов год будет очень стремительным, так как приходит вторая звезда путешествующей лошади.

ЗДОРОВЬЕ — хорошее. Но нужно отдыхать, не доводя себя до усталости!

ОСТОРОЖНО — в месяцы собаки (с 5 октября и по 6 ноября). Для драконов это месяц столкновений.

(Продолже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Основная часть спортивной делегации РК прибыла в Пекин

31 января основная часть спортивной делегации РК прибыла в Пекин. В её составе 71 человек. Это 41 спортсмен, в том числе, конькобежцы, биатлонисты, бобслеисты и скелетонисты, и 30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В олимп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64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а. Они будут бороться за медали в шести из семи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хоккея. Обращаясь к журналистам перед вылетом в Пекин, президент Корейск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и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Ли Ги Хы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все спортсмены останутся здоровыми, и чт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будут поддерживать их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Олимпиады. Ранее в Пекин вылетели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санному спорту и шорт-трек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по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скромную цель выиграть одну или две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и финишировать в числе 15 лучших в медальной гонке. Знаменосц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борной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Олимпиады выбраны шорт-трекист Квак Юн Ги и конькобежка Ким Мин Сон.

В РК введены цифровые водительски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В РК введены в действие цифровые водительски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Церемония их презентации состоялась 27 января при участ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олиц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и запущены мобильны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госслужащих. Удостоверение, загружаемое в смартфон граждани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имеет ту же юридическую силу, что и пластиковы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означило внедрение цифровых удостоверений личности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задач в сфере широкого внедрения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Это позволит устранить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ластиковых удостоверений, такие как недолговечность и чрезмерное раскрытие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сокращаться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декабрь 2021 года, в РК находились 1 млн 956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Как сообщили 26 янва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это на 23%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9 годом, периодом до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С 2011 года до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РК непрерывно увеличивалась, составив в 2019 году 2 млн 520 тыс. человек.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тране находились 1 млн 569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с долгосрочными, и 386 тыс. – с краткосрочными визами. Число нелегалов составило 388 тыс. человек.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ходится на граждан Китая. Далее следу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ьетнама и Таиланда. Больше всег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т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Далее в порядке убывания следуют города Сеул, Инчхо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Чхунчхон-Намдо и Кёнсан-Пукто.

Телеведущий KBS Сон Хэ может войти в Книгу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Известн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телеведущий Сон Хэ может войти в Книгу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Как сообщили 25 января в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и KBS, ранее направлена заявка на регистрацию ведущего программы телеканала KBS1 «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песен» Сон Хэ в качестве «Самого старого ведуще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шоу талантов на телевидении». Составители Книги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провели проверку и подтвердили получение заявки. Сон Хэ родился в 1927 году и дебютировал в индустрии развлечений в 1955 году. В течение 34 лет, начиная с 1988 года, он ведёт популярное шоу «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песен». Считается, что внесение Сон Хэ в Книгу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станет поводом к тому, чтобы во всём мире узнали о потенциал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передач.

«Ким Чжи Ён 1982 года рождения» - самая продаваемая книга из РК за рубежом

«Ким Чжи Ён 1982 года рождения» - самое популяр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за рубежом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Как сообщили 18 января в Корейском институте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еревода, роман писательницы Чо Нам Чжу в период с 2016 по 2020 год был переведён на 10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и продан в количестве более 300 тыс. экземпляров, в том числе, более 200 тыс. экземпляров продано в Япони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роман «Вегетерианец» писательницы Хан Ган, удостоенный Букеровской премии 2016 года. Он издан на 13 языках и продан в количестве более 160 тыс. экземпляров. В Японии популярен роман «Миндаль» писательницы Сон Вон Пхён, который продан в количестве более 90 тыс. экземпляров. Роман «Происхождение видов» писательницы Чон Ю Чжон популярен в Бразилии, где продано более 20 тыс. экземпляров.

(RKI)

КНДР готовит запуск твердотопливной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ракеты

Согласно оценкам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изведенный 30 января КНДР запуск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тал самым большим вызовом за последние четыре года. Эксперты же считают, что Пхеньян, похоже, намерен реализовать озвученные недавно угрозы и возобновить запуски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а сегодняшний пуск является подготовкой к более крупному старт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ъедине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КНШ ВС РК), 30 января в 7 часов 52 минуты утра КНДР из местечка Мапхённи провинции Чаган в сторону Восточного (Японского) моря произвела запуск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БРСД). Ракета проследовала по несколько необычной траектории, уйдя круто вверх примерно до высоты около 2000 км, а затем упала за пределами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Японии, пролетев в длину лишь 800 км. Скорость движения ракеты была оценена в 16 маха.

В принципе, подобный запуск "свечко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не очень удивил. КНДР направляет свои ракеты по крутым траекториям уже не первый раз, делая это скорее всего чтобы не провоцировать другие страны. Как посчитали в Сеуле, если бы та же самая ракета была бы запущена по обычной траектории, которая составляет от 30 до 45 градусов, то она бы улетела куда дальше - 3500-4500 км или еще дальше, то есть могла бы поразить военные базы США на Гуаме или даже на Аляске. Именно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перерасчета дальности и был сделан вывод, что заряд является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средней или промежуточной дальности.

Политологи назвали данный запуск "самой большой ракетной провокацией КНДР за последние 4 года". Напомним, что в ноябре 2017 г. КНДР произвела запуск ракеты "Хвасон-15", которую оценили как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ую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акету (МБР), способную поражать почти любую точку в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части США. Затем последовало резкое обострение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а после - не менее стремительная дружба и личные встречи между Ким Чен Ыном и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В 2018 г. Ким заявил, что в качестве жеста доброй воли вводит мораторий за запуск МБР и испыт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Эксперты-ракетчики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е на запуск в ноябре, а в мае 2017 года. Тогда полетел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жидкотопливная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Хвасон-12" (западное название - KN-17), у котор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полета были схожие с подследней системой: дальность полета - 787 км при максимальной

высоте 2112 км. "Исходя из схожих показателей,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теперь КНДР произвела запуск улучшенной версии "Хвасон-12", которую запускала 14 мая 2017 г.", - сказал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информагентству "Ёнхап"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Вое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21-го века Рю Сон Ёп.

Южнокорейцы также полагают, что на этот раз скорее всего новая версия "Хвасон-12" имела уже твердотопливный двигатель, который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оздала и успешно протестировала. Ракеты с твердым топливом менее уязвимы перед возможным ударом противника - они требуют меньше времени на подготовку. Если это так, 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КНДР совершенствует БРСД "Хвасон-12".

В Сеуле также высказали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нынешний запуск стал последней репетицией перед запуском уже МБР "Хвасон-15", которая теперь будет тоже с твердотопливным двигателем, а запуска более дальнобойной ракеты не остается долго ждать. Напомним, что 19 янва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Политбюро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НДР, обвинив США в продолжении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решила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о пересмотре мер для построения доверия, предпринятых нами в первоочередном и инициативном порядке, и возобновлении приостановленных всех действий". В переводе на понятный язык это означало угрозы КНДР отказаться от моратория на запуски МБР и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объявленный в 2018 г.

В итоге сейчас все детали "пазла" хорошо складываются: КНДР предупредила и начала возобновлять запуски, а МБР полетит уже совсем скоро - либо в районе 16 февраля, когда в КНДР будут отмечать 80-летие дня рождения Ким Чен Ира, или 15 апреля - на 110-летний юбилей Ким Ир Сена. Это два крупнейших праздник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ем более юбилейные в этом году, а потому Пхеньян вполне может их "отметить" запуском ракеты, способной поражать США.

Если данные предположения верны, то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совсем скоро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ждет резкое обострение ситуации. В конце 2017 г. аналогичное развитие событий поставило регион на грань войны между США и КНДР. Д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и ее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се усилия по нормализац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укрепл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шли прахом. Не случайно Сеул ужесточил риторику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решительно осудив запуск"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СНБ Южной Кореи, где на встреч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вал лично Мун Чжэ И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МИД рекомендует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окинуть Украину

Сеул, 31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о, что направит трех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в свое посольство в Украине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планов действий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для граждан Южной Кореи в условиях эскалаци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Чон Ю Ён провел виртуальную встречу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Юж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и, Украине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на фон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Киевом.

Посольство Сеула в Украине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 обновля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средствах передвижения и

наземных маршрутах на своем веб сайте во время встреч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гражданами и компани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советовало южнокорейцам в Украин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тправиться в более безопасные регионы, поскольку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ейсы по-прежнему выполняются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в семи аэропортах в шести городах.

По уточненным данным, около 440 южнокорейцев находятс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Украине,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в столице Киеве и других городах страны.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министерство рекомендовало гражданам Южной Кореи в 15 южных, восточных и северных регионах Украины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в связи с возросшей угрозой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кцинация школьников должна проводиться добровольно и только с согласия родителей

Об этом заяв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ая партия вакцины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7 лет поступила на остров неделю назад. Прививку от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сделали уже 126 школьников. От родителей 485 ребят получено информированное согласие.

– Прививать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можно только с согласия родителей. Никакого принуждения,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здоровье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быть не может. Решение о вакцинации должно быть осознанным. Перегибов в этом вопросе я не потерплю!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прививки школьникам делают в присутствии врача-педиатра. Каждого юного пациента наблюдают после вакцинации. За прошедшую неделю только один подросток обратился с незначительным повышением температуры – это нормальный иммунный ответ организма.

Если в первые дни кампании по иммунизации на прививку обращались по несколько юных пациентов, то се-

годня в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ежедневно принимают по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пациентов.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в числе первых, кто приводит своих детей на вакцинацию.

Напомним, чт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ереболели более 2 тысяч детей. Новый омикрон-штамм опасен не только для взрослых, но и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Вакцина «Спутник М» создана на основе «Спутника V». Клинические испытания препарата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проводись более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Как и взрослый вариант, детская вакцина двухкомпонентная. Прививку нужно делать с интервалом в 21 день. Если имеются хронические патологии – необходимо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 лечащим врачом. На сегодня прививочная кампания проходит в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следующих партий вакцина будет распределена по районам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более 3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 ремонт дорог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на островах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более 21 километра транспортных артерий.

В перечень объектов вошли дороги, которыми каждый день пользуются тысячи водителей и пассажиров.

В их числе – участок дороги Лиственничное – Охотское, до поворота на карьер «Лиственничный», улица Авиационная от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до улицы Ленина, проспект Победы от улицы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до улицы Западной, переулок Энергет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и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селе Новосибирское, на северо-западном объез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вершатся работы на должгоданном дл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участке по улице Украинская.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по ремонту и приведению в нормативное состояние моста через реку Кострома в селе Костромское.

– Для повыш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ги оборудуют совреме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фотовидеофиксации нарушений. Всего на год запланирована установка 5 таких комплексов. Сейчас идет заключение контрактов с подрядчиками на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 – рассказ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Эдуард Ри.

Напомним, нацпроект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2019 года. За этот период удалось привести в нормативное состояние более 73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роскоп от астролога Ирины Хан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ЗМЕЯ – Вам потребуется вся ваша мудрость и стойкость пред лицом жизн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Змея входит в огненное наказание.

Но к ним придет помощь благородных людей. Помощь придет к вам, когда вы будете очень нуждаться в этом.

Еще одна благородная звезда приходит в 2022 году. Это звезда благородный тайцзы!

Звезда, дающая человеку огромные жизненные силы,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одолеть любые препятствия и проблемы, обладать крепким здоровьем и иметь высокий материальный и духовный уровень.

Вам необходимы положительные эмоции и новые впечатления. Вам хорошо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чтобы не впасть в депрессию. Но не стоит покидать родной дом и отправляться на отдых в месяцах февраль, май и август.

БОГАТСТВО – доходы понизятся. Денежные потери в течении года. Не давать деньги в долг.

КАРЬЕРА – неблагоприятен для смены работы. 2022 год не время больших мечтаний.

ЗДОРОВЬЕ – следите за ЖКТ.

Возможна депрессия, апатия. Настройтесь на позитив.

ОТНОШЕНИЯ – мужчины-змеи найдут себе партнера в браке.

ЛОШАДЬ –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год изменений. Их ждет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 и много благоприятных звезд, но будут и негативные моменты. Общая удача в 2022 году будет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особенно в карьере. В течении всего года ожидайте рост дохода, финансы вас поражают в год тигра.

В 2022 году лошадкам разрешается сменить место работы или поменять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меняются ваши действия и самовыражение.

Вас будут окружать очень добрые и искренние люд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едлагать Вам свою помощь.

ДЕНЬГИ – в 2022 году будет явная тенденция к финансовому росту, те, кто занимается бизнесом, могут расширить свое дело. Прибыль может быть неожиданная.

КАРЬЕРА – будете быстр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ся и процветать в своей отрасли. Если есть лучший вариант деятельности, то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буйте его.

ОТНОШЕНИЯ – необходимо сохранять баланс между карьерой и личными отношениями.

ЗДОРОВЬЕ – хорошее. Тяжелых болезней не предвидится! Но эмоционально и духовно вы нестабильны в год тигра. Возможны бессонница, переживания. Вам необходимо снимать негативные эмоции путем приятных посещений веселых и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сторожно нужно быть в месяце декабря. Это месяц крысы, месяц столкновений.

КОЗА – общее состояние дел бу-

дет хорошим, будет бодрость, энергия. Удача в карьере и любви будет расти.

Одной главной из благоприятных звезд – это будет цветок персика. Она дает любовную романтику,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и коммуникабельность в социуме.

Еще одна благоприятная звезда в 2022 году – это звезда добродетеля. Вам будет полезно помогать другим, тем самым вы увеличиваете собственную удачу.

БОГАТСТВО – шанс удвоить свой доход. Если у вас личный бизнес, то это помогает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сточник дохода.

КАРЬЕРА – в 2022 году могут быть трудности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особенно на новом месте. Могут быть и завистники, не афишируйте свою удачу на работе.

ОТНОШЕНИЯ – с точки зрения отношений год обещает быть очень перспективным. У козочек к концу года могут быть пополнения в семье.

ЗДОРОВЬЕ – Вы будете очень активны в год тигра, но вам нужно пройти чек-лист по здоровью по бронхо-легочной системе и системе ЖКТ. Но каких либо тяжелых заболеваний не будет, а кто боле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х здоровье постепенно будет приходить в норму.

ОБЕЗЬЯНА – грядущий год станет годом перемен и трансформаций во многом, потому что в 2022 обезьяна будет в конфликте с тайсуй, с князем года ТИГР. Это год проверки ваш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быстро реагировать, преодолевать препятствия. Год для вас пролетит, как один день. Но, тупика у обезьян не будет, ведь в китайской метафизике – это самые умные, самые энергичные, самые денежные животные.

В 2022 году у вас отличная звезда ПУТЕШЕСТВУЮЩАЯ ЛОШАДЬ. Вы будете постоянно в разъездах, будете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работе или с целью образования. Вы можете стать знаменитым в своей отрасли, к вам может прийти слава. Помните, что год столкновений приносит человеку и позитивные перемены, скучать не придется.

В 2022 году к вам придет звезда академика. Это звезда творческих наклонностей, она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человек может быть одаренным. Вы будете легкообучаемы. Эта звезда даст вам высокий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ЗДОРОВЬЕ – необходимо следить за своим здоровьем.

Не желательно лететь в августе в путешествие.

БОГАТСТВО – богатство будет нестабильным. Заработать вы можете в командировках, в экзотических местах.

КАРЬЕРА – благодаря многим благоприятным звездам в карьере у вас будет удача. У вас в эт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звезда достижений. Она даст вам повышение по служебной лестнице и рост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ОТНОШЕНИЯ – одиноком мартышкам повезет в любви. Ведь год тигра приносит перемены, и вашему одиночеству придет конец.

ЗДОРОВЬЕ – весь год нужно остерегаться ДТП, не лихачить, Помнить об огненном наказании, избегать фейерверки в новогоднюю ночь, в январе. Дома иметь противопожарные мазы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Пусть лежат. Как правило, когда они есть, то и не понадобятся. Как талисман.

Огненное наказание особенно проявится в месяцы – ФЕВРАЛЬ, МАЙ, АВГУСТ. К огненному наказанию относятся и проблемы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системы, инфаркты, инсульты, поэтому мониторить артериальное давление должно войти в ваш ритуал.

Нервная система будет на пределе, держите себя в руках.

В основном само здоровье будет в норме, просто вы сами своим поведением можете его испортить.

ПЕТУХ – 2022 год станет очень важным годом удачи.

К вам приходит *Звезда небесный император*. Она даст вам авторитет и возможность добиться высо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Вторая звезда в 2022 году – это благородный человек небесной кухни. Если петушки заняты в сфере пищеблока или в области высокой кухни, то такое самовыражение принесет вам большую удачу.

БОГАТСТВО – петухи – это второе денежное животное после обезьяны. Тигр принесет вам много работы, обязательств, а значит и увеличится ваш доход.

КАРЬЕРА – стремительный тигр поможет петухам продвинуться по карьерной лестнице, вам можно даже менять место работы. В Китае петухов сравнивают с драконами. Считается, что петух, как и дракон, очень яркий, красивый и талантливый зверек. И если в 2022 году вы проявите весь свой талант и креатив, то вас заметят. Будет много предложений по работе, а значит и поступление денег.

ОТНОШЕНИЯ – Петухи – это координатный знак. Энерги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строение карьеры, налаживание деловых отношений.

В 2022 году в сектор петуха попадает Звезда ссор и конфликтов.

ЗДОРОВЬЕ – на здоровье может влиять звезда семерка.

Осторожно быть в месяце марте. Потерпите месяц март, а за ним придет апрель – месяц дракона. И вам станет легче, потому что дракон и петух в китайской астрологии являются тайными друзьями.

СОБАКА – У собак это год финансового успеха и творческих прорывов.

В их сектор прилетает на год благоприятная звезда 6, она называется ЗВЕЗДА НЕБЕСНОЙ УДАЧИ.

Шестерка – звезда власти, статуса, она приносит небесное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 успех, авторитет, высокое положение, известно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Дает силу воли, стремление следовать цели, доводить начатое до конца.

Старайтесь проводить дома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Занятие творчеством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вашему успеху и финансовому

благополучию.

БОГАТСТВО – не конфликтуйте. Конфликты могут привести к денежным потерям. Ваша агрессия может вам дорого обойтись. В 2022 году не рекомендуется делать какие то крупные решения, чтобы избежать финансовых потерь.

КАРЬЕРА – не однозначно. Те, кто занят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а, литературы, моды будут на вершине карьеры. А те, кто занят переговорами, юридическими консультациями, не ждите высоких достижений. В этом году не стоит менять работу. На старом рабочем месте у вас больше будет гармонии и успеха.

ОТНОШЕНИЯ – год тигра для собак несет звезду ОДИНОКИЙ ФЕНИКС.

Эта Звезда символизирует одиночество и трудности в заключении брака. Как правило, у таких людей часто появляется равнодушие к своим партнерам, они могут игнорировать их. Близкие люди должны понимать, что собачкам в год тигра необходимо св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и время на уединение.

ЗДОРОВЬЕ – Весь год будет существовать риск аварий, травм, велика вероятность 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Берегите свое тело от ран. Ваша бессонница будет результатом ваших ментальных переживаний.

Особенно осторожны будьте в апреле. Это месяц столкновения с Драконом. Попробуйте носить в этом месяце талисман петушк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отвлекать дракона от вас (собаки).

СВИНКА – у свинок много благоприятных звезд. Больше, чем не благоприятных.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о много возможностей, они принесут продвижение по службе. Повышение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ам будут помогать близкие люди, друзья и коллеги.

БОГАТСТВО – рост дохода и увеличение прибыли. Но нужно научиться управлять своими финансами, любые кредитные проблемы могут привести вас к финансовым кризисам.

КАРЬЕРА – есть вероятность быстрого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продвижения по службе. Отличный год для смены работы.

ОТНОШЕНИЯ – повезет в любви. Но у семейных пар может наступить кризис в отношениях.

ЗДОРОВЬЕ – общее состояние будет нестабильным. Риск гипертонии, диабета. Свинок очень добрые и хлебосольные, у них всегда в доме изобилие еды, несколько холодильников, битком забитые погреба. Но в 2022 году избегайте застолий. Ограничьте сладкую и жирную пищу.

Следите за состоянием крови и артериальным давлением в месяце мае. Это месяц ЗМЕИ, месяц столкновений.

Дорогие Свинки, вы очень позитивны и не унывайте, помните, что в вашем секторе присутствует благоприятная звезда БЕЛАЯ ШЕСТЕРКА на северо/западе. Энергия всегда иде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добро! Белая шестерка и будет вас защищать. Это же звезда НЕБЕСНАЯ УДАЧА.

한중 동계올림픽 사진 교류전, 서울·베이징서 동시 개최

주중한국문화원과 주한중국문화원 공동 주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기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감동의 순간들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준비 상황 사진 전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열흘 앞둔 지난 1월 25일, 한중 동계올림픽 사진 교류전이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개막했다.

주중한국문화원과 주한중국문화원이 주최하고 주중한국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 해외문화홍보원이 후원하는 교류전은 '하나 된 열정, 함께 미래를 향해'란 주제로 오는 3월 15일까지 한중 양국 문화원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교류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빛낸 감동적인 순간들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준비되는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줄 사진 60여점으로 구성됐다.

평창올림픽 관련 사진 30점은 화려한 개폐막식, 격정적인 경기, 영광의 시상식, 열정적인 응원 등 4년 전의 감동과 영광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관련 사진 30점은 경기장과 선수촌의 생생한 현장, 성화봉송의 순간, 중국 역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여 선수들의 모습 등을 포착한 것들이다.

사진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와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둥둥(冰墩墩)도 전시됐다.

김진곤 주중한국문화원장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지정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진 교류전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 양국 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변경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 입국금지는 해제

2월 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8일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추어 제8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와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통해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를 10일간 격리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해 온 중대본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것은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확산율이 2배 이상 빠르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지난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중대본은 또한 "남아공,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 효과는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추가조치들은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이며,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파주시 문산읍, 사할린동포회 어르신 설맞이 행복나눔 행사 가져

문산읍(문산읍장 이재면)은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1월 27일 선유휴면시아 아파트 3단지, 당동휴면시아 아파트 3단지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회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라면, 햄, 참치, 마스크, 치약, 칫솔 등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파주시의회 최유각, 이호숙 시의원과 사할린동포회 이화일 회장, 노미자 수석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어르신 94가구 143명에게 따뜻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이화일 사할린동포회장은 "명절이 되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지는데, 매년 잊

지 않고 음식과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재면 문산읍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영주귀국 사할린 어르신들이 이번 행사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산읍은 사할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소고기, 라면, 햄류 등 식료품과 마스크 등 생필품을 사할린동포회에 전달하고 있다.

(경인자치신문)

인구절벽시대 막을 해법은? 제121차 재외동포포럼 개최

750만 재외동포와 250만 외국인이주민 문제 관련
'인구절벽시대의 해법' 모색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종제)은 1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21차 포럼으로 '인구절벽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문표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신현태 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 이병흥 LCM에너지솔루션 대표, 양창영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70여명이 참석했다.

750만 재외동포와 250만 외국인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 '인구절벽시대의 해법'을 모색하는 이날의 정책포럼은 윤인진 한국이민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발제는 '차기정부 이민정책추진 체계의 방향과 과제'(김태환 교수, 한국이민정책학회), 제2발제는 '이민, 다문화 학문과 활동은 국민전체의 무교육화로'(정지윤 교수,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 제3발제는 '인구절벽시대의 현실과 해법'(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로 진행됐다.

김태환 교수는 "저출산으로 국내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입국 이주민이 감소했고 체류 외국인도 감소하고 있다. 이민정책과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수 행정기관의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는 개혁이 시급하다"며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이민행정 업무의 유기적인 집행을 위해 통합적인 행정 추진 체계, 즉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대한 토론 순서에서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탈북이주, 노동이주, 결혼이주, 재외동포의 귀환이주 등에 대한 정책을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 간 유사 또는 중복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기구 형태와 관련해 하나의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이민청' 또는 '이민처'를 설치하는 방안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민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서는 "1단계로 이



재외동포포럼은 1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21차 포럼으로 '인구절벽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민정책 관련부처들의 논의와 합의과정이 있어야 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단계는 합의에 따른 법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3단계는 법 개정과 함께 기구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채완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은 "이민청 설치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토론과 시간이 필요하다. 향후 이민정책의 추진방향은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포용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완 이사장은 "현 단계에서 최우선과제는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법제정"이라며 "재외동포청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적 토론과 공감대가 있고, 1999년~2021년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재외동포청 박병석 의원 외 11개 의원'이 제출된 상황으로 법제정을 실천하는 단계에 왔다"고 강조했다.

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은 발제에서 "750만 재외동포의 역이민과 243만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도시 건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를 해소하고자 13년간 265조원의 예산을 지출했으나 효과가 미흡했다. 다문화와 귀환동포가 함께 사는 정착도시 건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종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은 토론에서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재외동포 세대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귀환을 희망하는 동포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능한 이웃 구성이 가능한 공동체로 타운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이주 노동자까지 고려한 다문화 복합도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절벽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포럼'은 재외동포포럼과 재외동포신문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아시아발전재단, 재외동포연구원, 세계한인여성협회, 한국여성언론협회, (주)LCM에너지솔루션, 대한월드방송이 후원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1번 조에서는 제2 리찌이의 미하일 밤비조가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2번 조에서는 제2 김나지아 학생인 신 세몬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3번 조에서는 제2 리찌이의 알베르트 신이 최고의 성적을 냈고 4번 조에서는 2번 김나지아의 알리사 마리니나가 최고로 인정받았다고 시 청소년·체육 관리국에서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двели итоги турнира "Белая ладья"

28 янва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шахматном клубе завершился муниципальный этап соревнований среди школьных команд "Белая ладья". 56 школьников из 14 средних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азыграли путевку на областно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по швейцарской системе, где каждому игроку было отведено по 60 минут на проведение своей партии с добавлением 30 секунд за каждый ход.

По итогам проведенных встреч третье место заняла команда гимназии №3, второе место — гимназия №2, и абсолютным чемпионом стала команда лицея №2.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наград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кубками, медалями и грамотами, а также пожелали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успехов и дальнейших побед в шахматных сражениях.

Помимо командного первенства также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лучшие юные шахматисты, показавшие отличную игру.

На первой доске наивысшего результата добился Михаил Бамбизо из лицея №2. На второй доске вне конкуренции оказался Семён Син, учащийся гимназии №2. На третьей доске лучшим стал Альберт Син из лицея №2, а на четвертой доске сильнейшим игроком была признана Алиса Маринина из гимназии №2, сообщает городской департамент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и спорту.

사할린, 2021년 11개월 동안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사할린 지역의 2021년 11개월 동안 인구 자연감소가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가속화됐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4,986명의 출생자와 6,882명의 사망자가 등록되었다.

인구 자연 감소 수치는 1,896명으로, 2020년 같은 기간에는 775명이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쿨리스크시구, 유즈노쿠릴스크시구 등 3개 지역에서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2021년에는 결혼 3,226건, 이혼 2,220건이 등록되었으며 2020년 같은 기간 등록된 결혼은 3,110건, 이혼 2,216건 이었다.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주 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사할린과 쿨리얼도에 들어온 사람은 16,277명으로 이 가운데 46.1%가 지속 거주자였다. 이탈자는 15,442명이며, 이

중 73.1%가 전 거주지의 등록을 취소했다. 사할린 지역 내에서는 5,110명이 거주지를 옮겼다. 이주자 증가수는 835명이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11 месяцев 2021 года умерло больше людей, чем родилось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одиннадцать месяцев 2021 года ускорилась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2020 года. В органах ЗАГС с января по ноябрь 2021 год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4986 родившихся и 6882 умерших,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1896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20 года убыль составляла 775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тр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ури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и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3226 браков и 2220 разводов против 3110 браков и 2216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20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ноябрь 2021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о 16277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46,1%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15442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73,1%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5110 человек. Миграционный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835 человек.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